

# 무등산 전망대 시민에 돌아올 기회 놓쳤다

1억9000만원 경매 나와 민간인이 5억2000만원 낙찰  
市, 도시공사에 매입 공문... 도시공사 유찰 예상 불참



무등산 전망대가 최근 경매물건으로 나와 1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3배 가까운 금액을 써낸 민간인에게 낙찰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전경을 살필 수 있어 명소로 자리잡은 무등산 전망대가 광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무등로 자갈길 길목에 위치한 이 전망대는 광주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경매에 나온 전망대를 매입하려 했으나 민간인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1-1번지에 위치한 무등산 전망대가 감정이 1억9395만5600원에 경매물건으로 나와 9명이 경쟁한 끝에 김모씨가 1차에서 감정가의 269%인 5억2120만원에 낙찰받았다.

광주시는 향후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분기별 정상 개방 등으로 무등산 전망대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경매 당일 광주도시공사 측에 매입 협조요청 공문까지 보냈으나 도시공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헛물'만 컸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매입하는 데는 복잡한 절차가 불가피해 시장 결재를 받아 도시공사에 매입을 요청했다"며 "도시공사에서는 첫 경매에서 유찰 가능성을 예상하고 경매에 불참했으며, 이렇게 높은 금액에 낙찰될 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측은 "어차피 이 금액이었다면 참여했다라도 낙찰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5년 자연녹지지역 59.9평에

건축면적 35.7평으로 건립된 무등산 전망대는 2층으로, 무등산으로 향하는 도로 초입에 자리하고 있어 시민과 외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는 식당과 슈퍼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연녹지지역인 만큼 낙찰자가 전망대 철거 후 새 건물을 짓기보다는 개축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는 지 40여년이 지난 만큼 여러 가지 손 볼 것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연녹지지역에 신축하려면 법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개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망대는 또 당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에서 피해를 당했던

김모씨가 광주시로부터 보상차원에서 양여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들은 "전망대는 원래 할아버지가 지은 것으로 박흥숙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건 이후 당시 시장 부인이 격려금을 준 것은 맞지만 전망대와는 별개 문제"라고 못

박았다.

관련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은 1977년 동구청 직원 4명이 무등산 기슭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박흥숙에게 무참히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난 2005년 영화화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치·운암동  
방화 잇따라

## 주민들 불안

9일 새벽 광주시 북구 지역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20개 북구 오치동 모음식점 앞에 세워둔 간판에 누군가가 불을 붙여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새벽 5시23분께에는 운암동에서 길가에 쌓아두었던 철재물품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어 17분 뒤엔 50m 떨어진 곳에 세워둔 차량의 집간에 불이 붙어 적재된 물품 일부가 타는 등 도로와 주택가에서 모두 3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화재가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고, 운암동의 경우 인근 100m 이내의 좁은 지역에서 잇따라 일어났으며 불길의 외부에서 일어난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연쇄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양념·김치류 원산지 둔감  
24개 업체 적발

최근 작황 부진으로 국내산 고추값이 폭등한 가운데 국내산의 3분의1 가적인 중국산 고춧가루와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둔감시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품관원)은 본격적인 감찰철을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양념·김치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4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품관원은 광주시 광산구 C식당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양념류 취급업체 및 김치 유통·제조업체 17곳을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소에는 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관원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방지에 힘쓸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거나 속여 판매하는 곳을 발견하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나 품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총인시설 로비 오갔나

시민단체, 업체-심사위원 대화 녹취록 제출

### 검찰 "신빙성 약하다"

광주시의 총인시설(오염물질 저감 시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단체가 업체와 심사위원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지난달 광주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파일과 관련 시민단체는 금품모포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녹취파일을 분석중'이라며 녹취 내용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9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의혹규명을 위해 업체 관계자와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의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자치21 관계자는 "파일에 '약속했던 대로 달라', '잔액도 달라',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사전에 서로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화도 포함됐다"며 "정확한 액수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만이 아니라 탈락한 업체 관계자들도

등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취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녹취물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참여자치21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녹취 파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도에 들어갔으나 자금 흐름을 조사할 만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내용을 살펴본 뒤 수사에 들어갈지, 감사원 감사에 맡길지 등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현재 2ppm에서 내년부터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설계, 감리를 포함, 공사비만 982억원에 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불 세탁 봉사활동

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1동 주민센터에서 동 복지위원회와 대한적십자 솔잎봉사회원 40여명이 지역 내 저소득 세대의 이불을 세탁해주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대학 총학생회장 성추행 논란

술 마신후 고스톱 치려 4명 모텔 투숙  
여대생 "옷 속 손 넣어 더듬었다" 고소

광주지역 모 사립대 총학생회장이 같은 대학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대학교 재학생 A(여·21)씨로

부터 지난 7일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총학생회장 B(24)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지난 6일 새벽 5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B

씨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B씨 등 일행 3명과 모텔에 투숙했는데, 술에 취해 잠이든 사이 누군가 자신을 더듬고 있어 눈을 깨보니 B씨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이 많이 취해 '하지말라'고 말리다 잠이 들었고, 당시 현장에는 함께 투숙했던 또 다른 남자 선배가 같이 있었다고 말했

다"며 "같은 날 오전 8시께 모텔을 나왔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A씨와 일행 3명은 모두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선배 사이로 이날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새벽 2시께 고스톱을 치기 위해 모텔에 투숙했고, 방을 2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행 중 한 명은 술에 취해 다른 방에서 먼저 잠이 들었고, A씨는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 잠이 들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토대로 B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일보에는 9일 총학생회장 B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회봉사명령 수행중 또 본드 흡입  
○...본드 흡입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30대가 봉사활동 중 쉬는 시간에 또 다시 본드를 흡입해 경찰서행.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하모(34)씨는 지난 8일 오후 담양 고서면 한 농장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하씨는 지난 8월 본드 흡입으로 112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이행중이었으며, 이날도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감 농장에서 일하던 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벌이다 들킨 또 다시 처벌 위기.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35차례 마트 절도 3명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9일 전국을 돌며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송모(22), 김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김모(여·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전 4시

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마트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들어가 200여만원이 든 금고를 들고 나오는 등 지난 9월말까지 35차례에 걸쳐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와 연인 사이인 이들은 훔친 돈으로 렌터카를 타고 전남·북, 경남·북, 충남 등 전국 21개 시·군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예약접수 중

#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12월1일

##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3급 공무원 시험 [국·경·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종합반 9급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검찰직 7급소방직(전원)

# 한빛고시학원

직업별 부서관 9급야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직직 평생강력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